

근대 이후 주거 내 배설 및 목욕공간의 변천과 생활변화에 대한 미시적 고찰*

전남일** 양세화*** 홍형욱**** 은난순****
Jun, Nam-Il, Yang, Sehwa, Hong, Hyung-Ock, Eun, Nan-Soon

1. 서론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에서 근대라 함은 일반적으로 갑오경장 이후 신문물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계기를 마련한 1876년의 개항을 그 기점으로 한다(전남일, 2003). 근대적 사회체계의 개편과 함께 도시기반 시설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상하수도 등이 갖추어지면서 주거환경에 대한 반성과 변화에 대한 관심은 주거개선에 대한 활발한 논의로 이어졌다.

주거환경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신문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해 소개¹⁾되었던 1900년대 초부터 주거의 근대화는 '개량', '개선', '문명화', '신생활' 등의 용어로 대변되었다. 주택개량에 대한 논의는 김옥균 등 개화파의해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1920년대 지식인과 건축가들에 의해서였으며, 이들이 역점을 두었던 것은 개화파와 마찬가지로 '위생'과 '청결한 생활'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배설과 목욕공간은 부엌과 더불어 위생과 건강 측면에서 시선이 집중되었던 공간이었다. 이후 1960년대부터의 산업화 시기 기능주의와 합리주의란 가치를 앞세운 공동주택의 확산은 이들 공간에 대한 또 다른 변화를 예고하였으며, 지금도 그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주거사 서술은 물리적인 주택의 변화와 그 속에서 펼쳐지는 생활상의 변화까지 읽어 나갈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주거의 근대화 과정에 대한 서술도 단순히 물리적인 시설·설비의 개량이나 청결

상태 등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포괄적인 파악이 어렵다. 주거변화를 유도한 배경에는 사회변혁과 이에 따른 거주자의 생활변화에 대한 요구와 의식의 변화가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역사 속의 평범한 개인을 수동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행동하는 존재로 보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공간,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파악을 가능하게 하는 미시적 접근은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의 배설 및 목욕공간을 중심으로 한 일상사와 조절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삶의 변화와 의미를 미시적 시각으로 규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문제는 첫째, 주거 근대화의 상징으로 묘사되는 '위생'과 '청결'의 실현 공간이었던 배설과 목욕공간의 변화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조명하고, 둘째, 그로 인한 주생활 상의 갈등과 정착과정이 근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시기적 범위는 개항기로부터 70년대까지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논의의 출발은 전통사회에서부터 시작된다. 근대화로 대변되는 변화들을 읽어 나가기 위해서는 당시에도 여전히 지배적이었던 전통적인 생활방식과 공간에 대한 언급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문헌고찰법을 이용하여 당시의 시대상과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구술자료, 고문헌, 대중매체, 연구논문 등의 사료들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유적촬영과 실측, 당시 생활상에 대한 직접 증언을 통한 사례조사 방법도 함께 이용하였다.

주요 초점은 주거 내 배설 및 목욕공간에 속하는 변소, 화장실, 욕실 등의 공간과 관련된 내용에 맞추어졌으며 시설·설비의 발달과 배설 및 목욕공간의 변화로 인한 가족구성원의 의식과 공간과의 상

* 본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 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 '한국근현대 연구지원'(과제번호 2003-073-CS1001)으로 이루어졌음

**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주거학과 조교수, 공학박사

***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환경학과 교수, Ph.D.

****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가족주거학과 교수, 이학박사

*****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교원, 이학박사

1) 1920년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창간되면서부터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였다(임창복, 1989)고 보고 있다.

호관계 변화를 미시적 시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전통주택에서 감추어진 공간과 생활, 뒷간과 목욕간

전통주택에서 배설과 목욕을 위한 공간은 분리되어 있었다. 목욕을 위한 공간은 독립되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배설 공간은 그렇지 않았다.

전통주택에서의 배설을 위한 공간은 ‘뒷간’이나 ‘축간’ 등의 용어로 표현되었다. 대개 뒷간은 눈에 잘 띄지 않는 담벼락 근처나 대문밖에 두었는데, 뒷간의 위치와 중요성은 당시 농경 위주의 경제 방식 뿐 아니라 유교문화의 재배를 받던 사회적 이념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뒷간은 농사에 필요한 퇴비를 생산, 공급하는 중요한 공간이었다. 배설물을 다시 농작물 생산에 재 활용하는 방식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서도 흔히 보여지는 생태적 순화체계이다. 위치상 되도록 거처하는 곳과 멀리 떨어지게 만든 것은 배설물의 재가공에 대한 측면이 더 강했으나, 결국 위생이란 잣대로 보았을 때 뒷간은 불결하고 부정적인 공간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뒷간의 위치와 개수에 있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서유구(徐宥矩)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는 뒷간을 만드는 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人家宜置三 一在內舍一在外舍一在垣外田疇之側 其在內外舍者 木柱板壁灰蓋 (인가의치삼 일채내사일채외사일채원외전주지축 기재내외거자 목주판벽회개)(이동범, 2000 재인용)

즉 살림집에는 축간을 세 개 설치해야 하는데, 하나는 안채에 두고 하나는 바깥채에 두며, 하나는 담장 밖의 발두둑 곁에 두도록 하였다. 안채와 바깥채에 있는 축간은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나무널로 벽을 만든 다음 회(灰)로 지붕을 덮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당시 지배적이었던 내외(內外)사상이란 가족내적 제약과 신분사회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으로, 배설행위라는 일상생활에 조차 남녀와 상하 구분이 엄격하게 적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조선시대 상류주택을 살펴보면 여성들이 거처하는 안채 주변에는 ‘내축(內厠)’을 두었으며, 사랑채 주변에는 ‘외축(外厠)’을 따로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하인들이 사용하는 ‘하인 뒷간’은 행랑채

바깥의 발두둑이나 담장 바깥에 두기도 하였다. 안동 하회마을에 있는 북촌덕에서는 집안사람 뿐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의 배설공간까지 배려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1. 나그네를 위해 마련한 뒷간의 모습. 사랑채의 외축(外厠)과 같은 지붕 아래에 있으나 내부를 둘로 나누어 그 중 하나를 바깥 골목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증언: 하회마을 북촌덕 손승000, 2005.9)²⁾

배설행위는 주택외부에서의 일상행위만은 아니었다. 배설행위는 남녀노소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각방의 내부공간에서도 행해지고 있었다. 전통적인 주거 생활양식은 공간의 전용성(轉用性)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각 방마다 주인이 있고 그들은 각자의 방에서 식사에서 배설, 목욕에 이르는 일상생활을 모두 영위하였다. ‘요강’은 이러한 내부공간에서의 배설행위를 지원했던 도구 중 하나인 썸이었다. 사용한 요강은 양반가의 경우 하인들이 뒷간에 가져가 비웠으며, 서민들의 경우 직접 처리하였다.



그림2. 농가 서민주택의 디딤돌 찻간. 예로부터 임신한 여성이 있는 경우 디딤돌 2개의 간격을 좁혀 두기도 했다는데, 혹시나 뒷일을 보다 아이가 나올까봐 이를 염려한 배려라고 한다. (사진과 증언: 전북 남원시 보절면 김00씨택, 2005. 2월 촬영)

조선시대에서 개화기까지는 유월 유두날부터 시작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목욕하는 천욕 풍습이

2) 3) 뒷간과 목욕에 관해 이야기를 해 준 두 증언자는 어렸을 적 집안 어른들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증언하였다. 당사자가 직접 겪은 시기가 조선시대는 아니었지만 당시의 습속이 여전히 1900년대 이후에도 계속남아 있어 조선시대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있어, 마을마다 암물터에서 여인들이 목욕을 하였다 (전완길, 1995)고 한다. 이처럼 위생을 위한 목욕행위는 주로 집근처 냇가에서 밤에 은밀히 행해졌으나 이것도 날이 추워지면 여의치 않았다. 주택 내에서의 목욕을 하는 공간을 '목욕간'이라고 하여 따로 둔 집도 있지만 대개 정지(부엌)에서 물을 데워 주 그리고 하거나 창고 안에 나무로 만든 큰 목욕통을 두고 사용하기도 하였다. 혹은 방안에서 세수대야의 물로 간단하게 온몸을 닦아 내는 정도였다.

옛날에는 대야가 셋넷 된다구. 큰 대야 있죠, 그게 시숫대야지. 그러면 발 씻는 대야가 또 따로 있어요. 아침에 또 발 씻으시지. 시방으루 치른 목욕하는 심이여. 방이 이렇게 있시른 저 뒷목에 장지 닫구 거그다 큰 대야에다 시숫물 갖다 놓구 양춧기에다 양춧물 받아 놓구. 시숫물 떠 놔지, 손숫물 또 따루 놔지, 발숫물 따루 놔지. 그때는 발 씻구 나시른 그거 내비리구 또 떠다 놔야 혀. 여자는 뒷물해야 허니겐. 시수 한번 허시른 시숫물 다섯 번 떠야 혀. 다섯 대야.(이규숙, 1984)

남자들은 대개 마을 앞 강가에 가서 먹을 감았지. 어릴 적엔 겨울에 커다란 나무통을 정지에 두고 댕힌 물을 부어 가끔 목욕을 하기도 하였구.. (증언: 하회마을 복촌댁 종손 000, 2005.9)²⁾

따라서 전통공간에서는 세면장이나 욕실의 개념을 찾기 어렵다. 이는 주택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보다는(박홍, 1988) 목욕을 종교적인 차원의 의식과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일상의 것으로 생활화하지 못한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목욕실의 부재를 생활행위를 제한하는 제한하는 요소로 받아들여지는 않았던 것이다.

결국 배설과 목욕을 위한 공간이 '위생'을 위협하는 제약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물리적 유형 및 전통적인 주생활 방식의 변화와 사회인식의 변화로 인해 초래된 것이었다.

2. 개화기의 쟁점, 위생과 청결

전통적인 용어인 뒷간은 일제시대부터 수세식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변소(便所)라고 불렀다.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외적변수는 너른 마당을 축소시켰으며, 마당의 한켠에 자리잡은 전통방식의 수거식 뒷간 역시 존재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욕실과 변소에 대한 논의가 빈번하였던 것은 공중위생에 대한 관심이 개별 주택의 위생설비개량으로 구체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독립신문」에는 '목욕집(공중탕)'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의 논설이 실리는가 하면, '공립뒷간

(공중변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1896.6.27, 1899.3.7)도 제기되었다.(김순일, 1982 재인용) 이는 각 주택에서의 위생설비가 매우 열악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공중 목욕탕에는 해방허구 나서 가기 시작했지. 시내에 몇 개 없었어...

큰 집 살 때는 집에서 목간통을 해 놓구 살았으니깐 안 가구 해방허구 나서 집이구 뭐구 다 없어지니깐 겨울에 좀 땀기구. 그래두 저기 물 속에는 못 들어갔어. 이롭게 텃병 들어가구 텃병 들어가면 "아이, 저거 뜨뜻한 물에 가면 오줌들 나오겠지?" 그래져서. 이롭게 보면 비눗물이 뜨잖어. 나는 목욕탕엘 가든 저 수도 구녕 앞에서 고기서만 씻구 나와. 고기 들어가기가 싫어서(이규숙, 1984).

목욕공간의 부재는 목욕행위의 비밀상화를 더욱 부추겼지만, "목욕=위생"을 강요하지 않았던 전 시대의 문화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있어 주거욕구로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선각자들을 중심으로 위생에 대한 각성의 글이 끊임없이 신문 등을 통해 소개되었으며,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공중탕과 공중변소 설립에 대한 주장과는 달리 건축가 박길룡 등은 위생적인 서구주택의 욕실과 변소 설비를 소개하면서, 개별 주택에서의 생리위생 공간 계획을 강력하게 제안하였다.

우리 在來便所는 不潔하다하여 멀리떨어놓고 멀리있는 便所의 不便을 이기지 못하여 방안에 便器 요강을 두는 것은 어는點으로 보든지 非衛生的인 것은 事實이다. 그러면 便所는 될 수 있는대로 다니기에 便利하도록 갖가우게 부치두고 清潔(청결)하게 할것이다. 在來式住家를 보면 舍廊같은 것은 相當하게 設備한 집이라도 그便所는 보잘것없이 不潔하여 그住家の 均等을 잃게 되었으니 마치 비단옷을 입고 집신을 신은 것과 다름이었다.(박길룡, 1935)

한 역사소설에 등장하는 다음 글(조정래,1995)은 주택내에 생리위생공간을 두었던 당시 일본식 집을 보고 주인공이 보낸 찬사이다. 외부공간에 위치하던 변소의 불편함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인 셈이다.

변소가 따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이 좋았고, 특히나 좋은 것은 목욕탕이었다. 집집마다 목욕탕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회한하고도 기막혔던 것이다.

서구문물의 도입으로 인한 사회의 변혁은 주거의 근대화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변소와 욕실은 "위생의 개선 및 합리화 추구"라는 문명과 계몽의 이

념 아래 개선되어야 할 대상 중 하나였다. 주택 내부로 '위생' 개념이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상하수도의 공급 등 사회기반시설의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가능했고, 계급사회가 붕괴되면서 일부 중인주택에서는 주택을 개조하여 목욕탕을 들이는 파격적인 행위가 이 시기에 나타나기도(전남일, 2003) 하였다.

이조의 전통적인 주택이 양반 중인 서인을 막론하고 목욕간에 대한 건축이 없었던 관계로 광이나, 부엌 같은 데서 물을 그릇에 담아놓고 목욕을 해 왔던 것이다. 특히 부녀자들 중에 일부는 조용한 밤에 집안의 뒤뜰의 우물가에 나와 하수(下水)를 한바, 한국에 들어온 일인들이 이를 몰래 숨어서 구경하기를 즐겼다고 한다. 그래서 일부 중인 계급은 집안에 건축하였던 조상의 위패를 모셨던 사당을 목욕간으로 개축하였다(이규태, 1968)

개화기에 나타난 유교문화와 신분사회의 붕괴는 전통주택에서 불필요한 공간을 없애고 생활에 필요한 공간으로 개조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당시의 이 같은 변소나 목욕간의 개조는 일부이긴 하지만, 가구의 주거조절 측면⁴⁾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과거 불편함을 감수하며 주택에 '적응'하며 살던 사람들이 변소나 목욕간의 개조라는 보다 적극적인 주거 '조정'으로 조절 방식을 바꾸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3. 과도기의 목욕실과 변소 계획

일제강점기 배설 및 목욕행위는 전통적 방식이 여전히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개화기에 지어진 일본식 주택 또는 일본식 절충주택을 통해 실내에 배치된 화장실이 소개되었으며, 1920년대 이후 일부 민간업자 주택에서도 재래식 화장실이 실내로 들어오고 여기서 배변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서구문화와 생활개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상류계층의 '문화주택'에서의 배변 및 목욕 공간의 계획은 보다 가시화되었으며, 생활행위에도 영향을 미쳤다.

주택개량의 필요성을 역설한 김유방, 박길룡 등은 변소를 적극적으로 주거공간 내부로 끌어들이고자 했다. 박길룡은 변소에 대해 "위생적으로 그 구조를 개량하여 멀지 안이한 곳, 다니기 편리한 곳에 부쳐놔코 신을 신지 안이한 대로 왕래하게 되도록 그 통로를 생각해야 한다"⁵⁾고 말했다. 그가 설계한 경

운동 민씨가의 경우(그림3. 참조) 복도를 통해 북쪽에 위치한 변소와 욕실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계획의 변화는 외부공간행위를 내부공간행위로 바꾸는데 일조하였으며, 동선의 변화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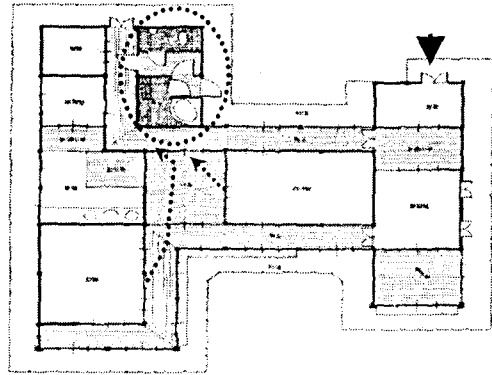


그림3. 박길룡이 설계한 경운동 민씨가(지방민속자료 제15호). 안채 부엌 북쪽으로 욕실과 변소를 분리하여 실내에 끌어 들었다. (최재필(2001) 그림에 필자가 동선표시를 붙임)

1930년대를 절정으로 중류계층의 대표적인 주택으로 확산된 개량한옥의 경우, 생리위생공간은 전통주택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변소는 행랑채 끝이나 대문 옆에 덩으로써 여전히 외부공간에 배치하는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중·하류층을 위해 공급된 영단주택의 표준설계도 보면, 욕실과 화장실은 주택 내부에 설치되어 있었다(손세관, 2001). 그러나 이는 주택본채로 완전히 편입된 내부화된 공간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여전히 신발을 신고 다녀야 하는 공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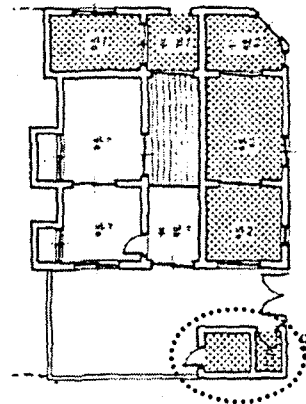


그림4. 영단주택의 평면도(10평형). 변소는 내부현관 옆에 위치하는데 변소와 욕실을 분리하여 설치하였다. (자료: 김선재, 1987)

4) 미사사회학적 접근의 주거조절이론을 만들고 검증해 온 Morris & Winter(1978)에 의하면, 주거현상이 한 사회의 구조에서 생겨나는 상황조건과 관계가 있고, 주거문제가 그 사회의 규범적 구조 때문에 문제로 정의된다(홍형욱, 2005). 이들이 제시한 주거조절모형의 최종단계는 주거조정과 적응행동으로, 그 중 주거조정행동은 이동, 개조와 증축행위로 나타난다.

5) 「(朝鮮文)朝鮮」, 127호, 1928.6, pp.55-59; 김명선·이정우(2003) '中部地方家構法'에 대한 박길룡의 평가와 개량안,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9(7), pp.161-169 재인용

대량의 주택공급은 주거평면의 표준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공간의 표준화는 생활양식의 표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 시기 목욕과 배설공간은 확실히 분리되어 계획, 건축되었으며 실내화 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내 위치의 변화 뿐 아니라 수세식 변기와 세면대, 욕조와 같은 설비의 변화는 생활습관 변화와 정결에 대한 인식을 가져왔다. 일상생활에 있어 변화는 서서히 오지 않았으며 새로운 환경에 대한 당황스러운 경험들로 채워졌다. 젊은 시절 처음 수세식 변기를 사용함으로써 인해 겪었던 충격을 한 노인은 이렇게 회상하고 있었다.

임오년(1942년) 봄에.... 변소 처음 드가 가지고-시골선 그런 변소 못 봤그든- 뭐 이래 빠죽한 게 달렸는데 뒤를 보고 나오다가 그걸 한번 잡아당기이 마 팔팔 물소리가 나서 얼마나 놀랐든듯. "아이구, 내가 뭘 일을 저질렀나. 이거 큰일 났구나" 한참 있다 소리가 덜 나네. 가슴이 후나닥후나닥 거려제. 그래 물어 보이 화장실이 본데 그래나 그래...(성춘식, 1990)

남녀와 상하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존재하였던 변소(상류주택 경우)는 가족관계와 상관없이 한개의 공간으로 통합되었으며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유도되었다. 비록 문헌에 의해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화장실 사용을 둘러싼 세대간의 갈등과 적응문제는 이미 이때부터 시작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4. 근대적 위생공간의 갈등과 정착

화장실이란 말은 서양에서 개발된 수세식 양변기가 들어오면서 씻는 곳과 용변을 보는 곳이 수도배관에 의해 하나로 통합되면서 붙은 서구적 개념이다.

임창복(1989)에 의하면, 화장실 공간이 처음으로 주택 내부로 들어온 것은 1941년 영단주택(문화주택)이 시초였고, 59년 개명아파트에서는 욕조와 변기가 설치된 화장실이 현관 옆에 설치되었다고 한다. 초기의 화장실은 세면기가 없고 욕조가 먼저 공간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욕조를 먼저 마련해 목욕을 할 수 있게 하되, 세면은 대야를 이용하도록 한 것은 공간과 설비적 제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목욕 및 목욕행위의 정착과정에서 보여지는 전통적 생활양식의 일부 수용으로도 볼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세면기, 욕조 그리고 양변기를 모두 갖춘 '욕실'은 1962년 마포아파트가 처음이었으며, 변소가 퍼내기식에서 수세식으로 바뀐 것은 아파트 건설이 계기가 되었다.⁶⁾

백색 위생기기는 부의 상징이자 서구적 문화생활

을 영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물들이었다. 그러나 입식으로 바뀌어 버린 양변기에 적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었으며⁷⁾, 생활문화의 차이로 인해 겪는 혼란은 크게 와 닿았다. 당시 생활상을 보여주는 한 잡지의 풍자만화에서처럼, 위생공간이 물리적으로는 단시간에 바뀌어 간 반면 생활양식은 쉽게 변화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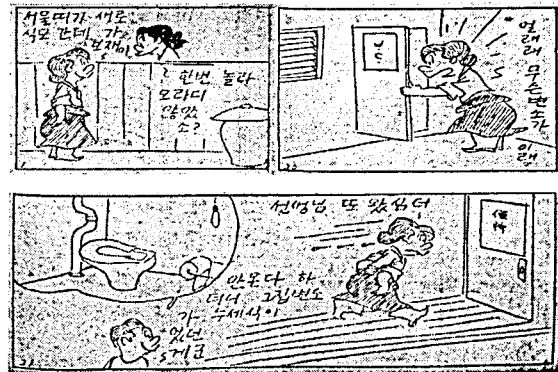


그림5. 서구식 생활, 수세식변소 (여원 1963.7)

게다가 공공시설의 화장실과 개별주택의 화장실 수준의 차이는 가족들, 특히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배변환경의 상이함을 느끼도록 하였다. 한 초등학교 교사의 말에 의하면,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학교 화장실로 인해 겪는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요즘 아파트에서와 같이 수세식 내지는 걸터앉는 좌식(座式) 변기를 설치한 집이 늘어나자, (초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새로운 문제거리가 일어나 교사를 당황하게 한다. 학교변소 기피증이다... 학교변소 기피증을 느끼는 아동들은 그 상이한 구조에서 우선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고, 또 학교의 시멘트변소와 가정의 흰 타일 변소의 차이에서 오는 색깔의 변화로 인해... (현대주택, 1978.6)

어려서부터 양변기에 익숙해진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 수세식 변소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한국 특유의 반수세식 변기가 개발되었다. 1965년 세워진 일부 외인주택과 화곡단지내 국민주택내의 변소는 상수도에서 직접 버려지는 오수를 저수탱크에 모아 두었다가 배변 후 변소 내에 설치된 패달이나 핸들을 작동시켜 그 물을 분노 세척용수로 사용하였다(정경숙·신경주, 1993).
- 양변기의 사용에 있어 적응문제는 서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다음의 글은 양변기 도입 초기, 프랑스 학생들이 그 사용법을 배우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수세식 양변기 사용은 학습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리하여 파리 시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양변기 위에 올라가지 말고 그 위에 앉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느라 애를 먹었다. 뿐만 아니라 화장실문의 아랫부분과 윗부분을 안이 보이게 뚫어 놓음으로써 관리인이 자기 자리에 앉아 학생들이 올바르게 물일을 보고 있는지, 말하자면 아래 틈새로 두 발이 보이고 위 틈새로 머리가 전혀 안 보이는지 감시할 수 있게 했다"(야콥 블루메 지음, 박정미 역, 2005)

지로, 재래식 변소에 익숙했던 노인들 역시 화장실은 갈등의 공간으로 작용했다.

처음 아버지가 누님집에 와서 겪은 고통은 화장실 사용이었다. 70년간 시골의 재래식 변소에 익숙해 있는 아버지는 아무리 용변이 급해도 좌식 양변기에 앉기만 하면 변의(便意)가 싹 달아나는 것이다. 아버지의 양변기 거부반응은 결국 오래 용변을 못 보다 보니 변비가 됐고...(현대주택, 1987.8)

아파트의 도입은 화장실의 실내화와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한 주거의 전반적인 생리위생공간의 질적 수준은 크게 향상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초기에 급격하게 물리적 환경이 변화하고 공간계획을 통해 입식생활이 강요됨으로써, 가족들은 적응할 시간을 외면당한 채 일상생활의 질서를 위협받고 부적응하는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III. 결론

본 연구는 개항기 이후 본격화된 주거의 근대화 일면을 배설 및 목욕 공간과 생활상의 변화를 통해 조명하였다.

근대화의 주요요건의 하나로 받아들여지는 '위생'과 '청결'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배설 및 목욕문화는 매우 불결하고 저급하게 보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거주자가 느끼는 위생과 청결 문제는 당시의 선각자들이 느꼈던 것보다는 훨씬 덜 심각하였을 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층이 보여주었던 변소와 목욕실의 개조를 통한 주거조정은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주거요구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문화와 생활양식의 차이로 인해 가족이 겪는 갈등은 각 시기마다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쨌든 근대화와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공간계획의 변화로 인해 배설 및 목욕공간은 진화는 시작되었으며, 그 사이 문화적 충격과 생활상의 조정과정을 통해 물리적 환경과 생활양식이 비로소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과정은 계속되리라 본다.

본 고에서는 개항기 이후 배설 및 목욕공간의 변화를 미시적 시각으로 개별 가족과 개개인의 입장에서 추적해 봄으로써, 근대화로 평가되는 주거공간의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김명선·이정우(2003) '中部地方家構法'에 대한 박길룡의 평가와 개량안.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9(7). pp.161-169
2. 김선재(1987). 한국 근대도시 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3. 김순일(1982). 개화기의 주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6권 106호. pp.27-31.
4. 박길룡(1935), "朝鮮住宅을 어떻게 改良할까". 신동아 5권 8호. pp.48-49.
5. 박흥(1988). 주택의 인테리어. 기문당
6. 성춘식(1990). 「이부자리 피이 놓고 암만 바래도 안와」. 뿌리깊은 나무 민중 자서전.
7. 손세관(2001). 「서울 20세기 주거환경의 변천」,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p.225-315.
8. 야콥 블루메 저, 박정미 역(2005). 「화장실의 역사」. 이룸.
9. 여원, 1963.7.
10. 이규숙(1984). 이'계동마님'이 먹은 여든살. 뿌리깊은나무.
11. 이규태(1968). "개화백경(42)", 조선일보 1968.9.17.
12. 이동범(2000). 「자연을 꿈꾸는 뒷간」. 들녘.
13. 임창복(1989). "근대화와 주거문화의 변동". 「공간」 통권262호.1989.6월. pp.110-117.
14. 전남일(2003). 문명화이론을 통해 본 개항기의 주거와 그 근대성의 재조명.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5). pp.25-40.
15. 전완길 외(1995). 「한국생활문화 100년」. 도서출판 장원
16. 정경숙·신경주(1993). "우리나라 변소의 역사적 변천과 그 현황". 한국주거학회학술발표논문집 제4권. pp.28-32.
17. 조정래(1995). 「아리랑」 제1권 3장.
18. 최재필(2001). "서울주거의 사회문화적 특성", 「서울 20세기 생활문화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 홍형옥(2005), 근대이후 한국주거의 미시사를 보는 다양한 시각, 「근대이후 삶과 주거변화」 2005 심포지움자료집, 가톨릭대학교 한국근현대연구팀. pp. 1-25.
20. 현대주택 1978.6. "아파트 열쇠를 건 아이들". pp.336-342.
21. 현대주택 1987.8. "아파트에 함께 사는 시부모와 며느리 정신질환 늘고 있다".pp.206-211.